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2년 2월

선교편지 제 150호



2022년 새해가 시작되면서부터 시내 교통 형편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연중 내내 파헤치는 상수도, 하수도 공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불시에 도로 전체를 막아 놓고 군인과 경찰이 합동으로 불심검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침 차량 검문과 맞닥뜨려서 제 차례가 될 때까지 거의 3시간 가량을 차 안에서 꼼짝 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차례가 되면, 탑승객과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할 뿐만 아니라, 가방을 포함하여 차량에 실려 있는 모든 짐들을 샅샅이 뒤지게 됩니다. 2022년 5월9일 필리핀의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 두고, 불법 무기를 색출하기 위해서 입니다.

필리핀은 매 6년마다 대통령과 부통령, 상하원과 지방 자치장을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을 합니다. 80%가 넘는 투표율이 말해 주듯이, 필리핀의 선거 열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정당 정치가 아직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정당보다는 자신들이 선호하는 인물에 대한 열렬한 지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수줍음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선거철이 되면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습니다. 후보자들 간의 대결 보다는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대결이 더 치열합니다. 총기 판매와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이곳은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가 사고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권자 사이에서도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부 신문 기자나 방송국 아나운서는 목숨을 걸고 후보자에 관한 소식을 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하여 반대되는 소식을 전한다는 이유로 살해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 등록을 하기 전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현 두테르테 대통령의 향방이었습니다. 워낙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이기 때문에, 비록 6년 단임제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대통령에게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무성했습니다. 부통령으로 또 다시 출마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상원의원으로 출마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마감일까지 등록과 철회를 반복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아무런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총 10명이 대통령 후보로 등록되었는데, 독재자로 유명한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들인 마르코스 주니어가 '봉봉'이라는 애칭으로 후보로 등록되어 있고, 세계적인 권투 선수인 '파퀴아오'와 현 부통령인 '레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통령 후보로는 현 다바오의 시장이며,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인 '사라 두테르테'를 포함하여 총 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후보자인 '봉봉 마르코스'와 부통령 후보자인 '사라 두테르테'는 러닝 메이트로서, 50%가 넘는 압도적인 여론 물이를 하며 초기에 기선을 제압 하고 있습니다.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지난 1986년 시민혁명인 'People Power'가 일어나면서 권좌에서 물러났고, 3년 후 망명지인 하와이에서 사망했습니다.

이후 그의 일가는 1990년대에 필리핀으로 복귀하였고, 아들 봉봉 마르코스는 고향에서 주지사와 상원의원을 거쳐 마침내 대통령 후보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계엄령 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은 일들을 기억하며,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강력했고 부유했던 필리핀을 그리워 하며 찬성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인 '사라 두테르테'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의 모병제인 군대를 젊은 청년들의 '의무 복무제'로 바꾸겠다는 획기적인 공약에 따라, 찬반도 많이 있지만 마치 강력한 필리핀이 곧 될 것같이 국민들의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필리핀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년 가까이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곳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주변을 돌아 보면 환자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이지만, 코로나 검사를 할 방법이 없어서, 병원에 실려가지 않으면 확진자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디고스 예일교회에서도 한 달 사이에 장례 예배를 두번이나 치룬 가정이 있을 정도로 코로나가 깊숙이 들어 와 있습니다. 아직도 야간 통행금지 및 주류 판매 제한을 하고, 백신을 맞지 않은 노약자들은 집 밖을 나올 수 없도록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거의 2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나라의 문을 2월 10일부터 열고, 백신을 접종한 해외 관광객들을 제한없이 받아 들인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관광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이곳에서 더 이상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수 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은 이와 달리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최근 필리핀을 Risk 최고 단계인 Level 4 (Very High)로 지정하고 여행을 하지 말라고 (Avoid) 권장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민다나오는 지역에 따라 내전과 테러, 납치 등으로 여행 금지 지역 (Do not Travel) 및 여행 재고 지역 (Reconsider Travel)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나라마다 필리핀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선거 열기가 급속하게 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빼곡하게 후보자들의 선거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하고, 곳곳마다 선거 유세로 사람들이 모여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다나오는 부통령 후보자의 연고지이기도 하고, 아직 이슬람 반군과 내전이 있는 곳으로 필리핀을 강하게 만들겠다는 각종 공약들에 호불호가 갈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온통 뉴스와 대화의 소재가 선거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거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고, 마스크는 정말 귀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선거'와 '코로나'가 뒤섞인 엄청난 혼란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공황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딤후 2:1-2)**

 디고스 예일교회와 아팔라야 예일교회는 전체 교인 수에 비해서 예배부에 속한 '찬양과 경배 팀'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 교인이 한 부서에서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제한이 없는 까닭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너무 기쁘고 귀해서 찬양팀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 찬양팀의 구성은 찬양 인도자 1명, 코러스 4명, 악기 4명 (키보드, 리드 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 1명이 찬양을 하며 PPT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한번의 찬양을 드리기를 위해서 10명의 인원이 일주일에 두 번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찬양팀이 디고스 교회에만 4팀이나 있고, 이에 더해 찬양팀에 들어 오고자 하는 대기자들도 더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찬양팀으로 섬기기를 원해서 참으로 감사하기는 한데, 찬양팀의 그 어느 누구도 음악을 제대로 공부했거나 악기를 제대로 배워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 작은 문제입니다. 즉, 열심은 있는데, 음악을 연주하는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독학으로 악기 연주를 어렵게 배워서, 그 다음 사람을 가르쳐 주는 식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실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을 뿐 아니라,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만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아직 한 손으로 밖에는 키보드를 치지 못하는 찬양 팀원이 있지만,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 참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을 볼 때 마다, 그동안 참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너무 작게 보여 '못해요'를 남발하고 거절했던 과거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학생들이나 청년은 물론이고 장년들도 교회에서 악기를 배우고 싶어하는 열망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집에 이러한 악기를 갖추고 연습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찬양팀에 합류해서 악기 연주를 배우고 찬양팀에서 섬기기를 원하는 공통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청년들과 학생들은 악기 주변을 맴돌면서, 제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며 악기를 연주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형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찬양팀의 문호를 활짝 열고,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멘토(?)를 연결해 줍니다.

1월말에 찬양팀이 모두 참여하는 찬양 세미나를 인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와 개인의 사정과 형편, 그리고 수준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하시는 줄을 믿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저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찬양이 그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 43:21)**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57-10 226th St. 1F. Bayside, NY 11364

